

# “제주시, 시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이런 게 행정 서비스다”

김태홍 | 승인 2022.05.24 12:42

‘4개 분야, 123개 세부 실행과제 추진으로 시민 일상회복 도모’

김신엽 기획예산과장, “시민이 행복한 도시구현 위해 적극행정 펼쳐나갈 것” 밝혀



제주시가 시민의 요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혁신행정을 펼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만족도를 끌어올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상회복 지원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제주시 열린 혁신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확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업무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설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면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총 4개 분야, 123개 세부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 참여·협력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소통협력공간 운영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공공서비스 = 인공지능 기반 보행안전 시스템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포용적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31개 과제로 추진한다.

▲ 일하는 방식 =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을 도입해 공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노무 등 전문상담관으로 구성된 시민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등 27개 과제를 추진한다.

▲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함께하는 현장행정'은 아라 천사 공간 운영, 도심텃밭 가꾸기 등 49개 사업을 전개해 지역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지난해 제주시 열린혁신 과제로 실행된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중점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올해에도 시민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앞으로도 제주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